

◆ The Condition of Best Book

# 良 書 의 條 件

安 春 根

## 一. 冊의 定義

책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오랫동안 冊을 통해서 공부했을 뿐 만 아니라 冊을 取扱하는 것을 職業으로 하는 사람조차 한 마디로 책이 무엇이라고 얼른 對答하지 못하는 것이 普通이다. 그것은 冊이 그만큼 단순하게 說明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가지로 分析해야 하는 特性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冊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要約해서 定義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人間의 思想이나 感情을 文字나 그밖의 記號로 表示한 內容이 있어야 한다.

둘째,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펴볼 수 있도록 造形되어져야 한다. 冊이 人間의 思想이나 感情을 記錄한 內容만 있으면 된다고 한다면, 돌에 새긴 碑文 따위도 冊의 範疇에 包含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書誌學的인 研究거리는 될지언정 現代의인 意味로서는 움직일 수도 便覽할 수도 없는 單純한 記錄만이 碑石을 冊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셋째, 一定한 分量을 갖추어야 한다. 冊이 單純히 人間의 思想이나 感情을 記錄한 內容이 있고, 누구나 손쉽게 便覽할 수 있으면 그마이라면 편지(書札)도 冊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편지는 적어도 人間의 感情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新聞도 그렇다. 冊이 新聞과 便紙와 다른 要素로서 一定한 厚薄을 要求하게 마련인데 이것은 世界的인 標準이 없이 각 나라마다 表紙를 除外하고서 本文만을 三十面, 六十面, 또는 百面 以上으로 規定한 나라 등 구구하다. 이러한 각 나라마다의 分量의 差異가 世界出版統計를 내는데 不便을 초래하기 때문에 國際聯合의 傘下 UNESCO에서 本文 四十九面 以上을 世界 各國에서 統計로 採擇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이 권고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以上을 要約한 冊의 定義란 ① 內容이 있어야 하고 ② 便覽이 可能해야 하며, ③ 一定한 分量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 二. 良書의 條件

冊이 갖추어야 할 條件이 대충 크게 세 가지인 것을 알 수 있으나, 그러나 이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結局은 內容과 形態의 두가지로 大別된다. 첫째로 冊이 人間의 思想이나 感情을 文字나 그밖의 記號로 記錄한 것이라는 말이 結局에는 內容, 卽 著述內容을 意味하는 것이라면, 둘째 便覽이 어떻든가, 셋째 分量이 어느 程度이어야 한다는 따위는 따지고 보면 모두가 形態에 關한 問題가 된다. 따라서 冊은 著述內容을 어떻게 形態化하느냐에서 좋은 冊도 되고 그렇지 못한 冊으로 區別된다. 다시 말해서 良書와 惡書가 判別된다.

그런데 흔히 良書를 原稿, 卽 著述內容만으로 판가름하려드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正當하다면 內容이 좋기만 하다면 原稿뭉치만을 가지고도 良書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內容이 훌륭한 著述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原稿뭉치만을 가지고 良書라고 하지는 못할 것이다. 훌륭한 內容의 著述을 冊으로서 造形化하고나서 비로소 良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冊이란 內容만이 問題가 아니고 形態 또 한 重要한 것을 알 수 있다. 冊의 定義에서 內容을 먼저 들기는 했으나 冊의 要件으로 세 가지 중 內容을 除外한 두 가지는 모두가 形態의인 것이라는 事實은 이를 잘 證明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 三. 內 容

良書를 評價하는데는 評著의 主觀이 作用하게 마련이다. 俗談에 제눈에 眼鏡이라는 格으로 보기에 따서는 良書도 惡書라고 評할 可能性이 全然없지 않다. 그러므로 內容을 놓고 冊을 評할 때는 ① 主觀的 評價

② 客觀的 評價, ③ 綜合的 評價로 三大別 할 수 있다.

누구나 必要에 따라서 冊을 購入할 때 甲에게 必要한 冊과 乙에게 必要한 冊의 內容이 다를 것은 勿論이다. 이 때 甲에게 切實한 內容이 乙에게는 그다지 所用되지 않거나 興味가 없는 것이 될 것인데 良書란 우선 讀者가 꼭 必要로 하는 것이 第一次의 要件이 된다 일찌기 英國의 牧師 콜리어(Collier)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하나님에 관한 冊을 읽고 그 책이 오히려 하나님을 나에게서 더 멀게 했을 경우, 人生에 관한 책을 읽고 그 책이 生의 값어치를 적게 하였을 경우, 道德에 관한 책을 읽고 그 책이 道德觀念을 惡하게 하였을 경우, 그 책은 나에게 惡書임을 안다. 나는 빵이나 우유를 要求한다. 술이나 아편을 바라지는 않는다.』

이것을 要約하면 첫째가 그 책에서 讀者가 바라는 內容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讀者가 바라는 內容이 있다 하더라도 人生의 즐거움을 增加시켜주는 것이어야 하고, 셋째로 道德的으로 非難을 받을 內容이 아니어야 한다는 말이 될 것이다.

이것은 主로 讀者의 處地에서 特別한 內容을 알려고 할 경우의 問題이거나, 이와 反對로 圖書館에서 不特定多數의 讀者를 對象으로 한 冊의 內容이란 一個人의 滿足을 채우기 爲해서 選擇될 수는 없다. 따라서 個人的 境遇와 같이 반드시 特定한 사람의 口味를 생각할 수 없는 反面, 普遍性이 있는 읽을거리의 內容으로 한 冊이 優先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보스트윅(A. B. Bostwick)은 가장 좋은 읽을거리의 特質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1. 眞實이 섞여진 冊.
2. 文章이 明快하고 理解하기 쉬운 冊.
3. 健全하고 趣味를 북돋아주는 冊.
4. 文學的인 價値가 있는 冊.

冊의 內容으로 본 良書의 要件으로 個人的인 趣向에서 보는 것과 客觀的인 立場에서 보는 要點이란 部分的인 觀察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보다는 社會的인 評價로 確固한 定評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安全한 評價일 수 있다. 그러나 책이 반드시 이렇게 確固한 社會的 評價를 받는 것은 아니다. 近來 우리 나라만 해도 一年에 千種 以上の 讀者들의 好奇心을 끄는 冊이 出版되고 있으나 批評을 받고 있는 책이란 그다지 많지 못하다. 그야 外國翻譯書로서 常識에 벗어난 경우, 例컨데 어떤 책 앞에 있는 解説 가운데, 그에게는 오빠와 누이가 있다고 해서 世界的인 大思想家를 男子도 아니고 女子도 아니게 만든 實例를 들어 그 全集은 보아야 할 價値가 없다고 스스로 判定할 수 있는 걸

함을 發見할 수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고서 수많은 新刊書 가운데서 良書와 惡書를 가려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特定한 讀者는 되도록 自己가 알고자 하는 內容이 어느 程度로 誠實하게 다루어졌는가를 살피는 한편, 圖書館에서는 一次的으로는 社會的 評價를 根據로 하고 그러한 評價를 하지 않고 있는 冊은 보스트윅의 說을 따라 決定하는 것이 無難한 內容으로 冊을 選擇하는 基準이 될 것이다.

#### 四. 形態

良書란 內容도 問題지만 좋은 原稿를 어떻게 해서 讀者들에게 效果있게 著述內容을 理解하도록 하느냐에 있다. 똑같은 原稿를 가지고도 그것을 取扱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形態는 얼마든지 달라진다. 하나의 原稿를 建築資料라고 할 때, 그것을 가지고 建築하는 技士에 따라서 建物이 달라지는 것과 같다.

冊은 人間의 思想이나 感情을 記錄한 內容이라는 原稿만을 두고 볼 때 순전히 人間의 精神인 著作의 結晶體라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것이 冊으로서 形體化 되었을 때는 하나의 物體가 되는데, 그저 단순한 物體가 아니고 工藝品으로서의 文化財라 할 수 있다.

冊을 形態的으로 分析할 때, 人間의 精神, 다시 말해서 그것을 著述한 사람의 精神의인 分身이 되는 知慧를 어떤 그릇에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나누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崇高한 內容의 著述일수록 훌륭한 그릇을 必要로 한다. 일찌기 先哲 플라톤은 弟子들이 著述을 하지 않는 理由를 물으니, 當時는 지금과 같은 原稿紙나 비단 같은 布類도 없어 羊皮紙라 하여 羊의 가죽에 글을 썼던 時節인데 그는 나의 高尚한 思索를 하질것 없는 動物의 가죽에 다 쓸 수가 있느냐고 反問하더라는 逸話가 있거니와 이것은 오늘 날 冊의 造形에 많은 示唆을 주는 敎訓이 아닐 수가 없다.

하찮은 內容의 著述을 豪華찬란하게 造形하는 冊이 있는가 하면 內容이 훌륭한 原稿를 아무렇게나 造形한 冊은 모두 良書라 할 수 없음을 勿論이다. 良書란 內容에 符合되는 形態를 갖추어야 비로소 良書로서의 要件을 具備하는 것이 된다.

#### 五. 圖書十則法

冊의 造形이 잘 되었다고 하는 것은 家居으로 치면 建築이 얼마나 實用的이고 藝術的으로 되었느냐를 따지는 것과 같이, 冊의 構造上 여러 가지 分野가 고루 잘 調和를 이루었느냐 하는 것을 살피는 것과 같다.

이렇듯 冊으로 具備해야 할 여러 가지, 다시 말해서 家居으로 치면 玄關에서부터 居室, 書齋 등을 點檢하듯

이 冊은 冊으로서 表紙에서부터 內容을 適切하게 드러내야하는 모든 部分, 例컨데 編集, 校正, 索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特別히 注目해야 할 九個條와 內容을 合해서 열 가지로 보아 圖書를 評價하는 十則法으로 삼는다.

1) 題號 : 冊이름인데, 이는 冊 內容을 잘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흔히 誇張되게 表示하는 例가 많아서 小事典도 되지 않을 것을 大事典이라고 한다든지 內容은 健全한 常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을 무슨 研究書라 한다든지, 讀者를 斯藺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性的 衝動을 자극하는 題號같은 것을 붙이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가 하면 얼핏보아 어떤 내용인지 全然 알 수 없도록 한 題號도 있는데, 이런 것도 問題가 된다. 그 冊을 全部 읽어보지 않고서도 대개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좋다.

2) 裝幀 : 원래 裝幀이란 冊을 造形하는데 있어서의 設計다. 그런데 一般的으로는 表紙의 그림 程度로 알고 또 實際가 그렇게 通用되고 있는 實情이다.

冊의 內容을 이루는 原稿를 어떻게 料理하느냐 하는 것을 全體의으로 檢討하고 美的 價値를 增大시키는 計劃이다. 이에 立脚해서 表紙의 그림도 알맞는 것으로 配列되어야 할 것이다.

3) 資材 : 책을 造形하는 資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冊의 면모가 달라지는 것은 事實이다. 이것도 內容에 相應한 것이 아니면 안된다. 가령 하얗은 읽을거리 冊을 흔히 辭典用紙로 알려진 印度紙라 아니면 高級 模造紙를 本文印刷紙로 擇했다면, 이는 마치 벽지우리를 타일(tile)로 치장한 建物과도 같다. 表紙, 本文 插入圖表 등 책에 필요한 모든 資材가 冊의 內容과 調和를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4) 印刷 : 우리가 普通 印刷라고 하지만, 그 方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것도 冊의 性質에 따라서 달리해야 할 것이다. 印刷에 앞서 寫眞이 많은 內容이면 活版印刷가 아닌 오프셋 印刷로 한다든지 高度의 印刷效果를 내야 할 寫眞이 있으면 코로타이프 印刷로 한다든지 하는 따위가 그것이다. 그리고 活版印刷에서는 너무 진한 墨色이 아닌 若干의 灰色으로 나타내는 것이 視力保護에 좋다.

5) 製本 : 冊의 定義에서 便覽이라는 것이 強調되었는데 그것이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해서는 製本이 잘 되어야 한다. 製本이란 本文紙와 表紙를 붙여서 책을 펴보는데 容易할 뿐만 아니라, 實用的으로도 堅固해야 하고 冊이 工藝品으로서도 價値가 있는 商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몇 차례 冊을 펴보면, 冊이 損傷되고마는 것은 全的으로 製本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製本이 冊의 壽命을 길게 하는데 얼마나 큰 役

割을 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6) 編集 : 원래 하나의 原稿를 놓고 이를 어떤 모양의 冊으로 造形하는가를 設計하는 것이 裝幀이지만 一般的으로 表紙에 限定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編集은 全體를 構想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特別히 本文을 어떻게 排列해서 어떤 模樣의 冊으로 하느냐를 저울질 하는 것이 普通이다. 章과 節은 어느 程度크기의 活字로 어떻게 排列함으로써 讀者들이 쉽게 內容把握을 할 수 있으면서도 調和있는 變化를 가져오는가를 細心하게 分析해야 한다. 하나의 冊이 編集이 잘 되고 못되기에 따라서 그 冊에 對한 印象이 달라지는 것은 勿論 著者의 意圖가 잘 反映되고 있는가를 저울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方面에는 特別한 技術이 必要한 것이 事實이다.

7) 校正 : 良書를 區別하는 條件의 하나로서 表面的인 것이 아닌 內容으로 가장 잘 表出되는 것이 校正이다. 校正이 잘 되어 있지 않다면, 誤字나 誤記가 많다는 結論인데 이것은 良書가 될 수 없다. 가령 大統領을 犬統領이라고 한 것은 讀者 스스로가 常識的인 判斷으로 알 수 있겠으나 그렇지 못한 誤字나 誤記는 著者의 意圖와는 全然다른 表現으로 둔갑하기 때문에 困難한 問題를 일으키는 수가 많다. 특히 어린이들, 보는 冊에서 學校에서 배운 綴字와 出版社에서 펴낸 책의 表記가 다를 때 어떤 것이 옳은지 분간하기 어려울 것이다. 冊을 읽어다가다가 校正이 철저히 못해서 讀者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책이 있다면, 이는 아무리 內容이 훌륭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良書로서 대우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8) 插畫 圖表 : 冊은 著者의 意圖를 讀者들에게 쉽게 解解되도록 꾸며져야 한다. 그렇게 하기 爲해서 文章表現만으로는 어려운 대목에 가서 插畫나 圖表를 첨부하게 마련이다. 열 번 說明보다 하나의 圖表가 주는 빠른 理解를 促求하는 때문이다.

가령 어떤 統計를 나타낼 때, 무엇이 얼마고, 무엇이 어떻다는 건 叙述보다도 조그맣고 짜여진 圖表하나가 훨씬 그 問題를 재빠르게 把握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이때, 그 圖表를 만드는 技術에 따라서 效果가 달라짐은 勿論, 그 圖表 또는 插畫를 排列하는 位置가 適當한가에도 細心한 注意가 있어야 한다. 一般的으로 圖表나 插畫는 책을 펴를 때에 되도록 속으로 들어가 가지 않고, 兩쪽 가로나 오는 것이 좋다. 이것은 이른바 一目瞭然하게 表全體를 아무런 장애가 없이 觀察함으로써만이 全貌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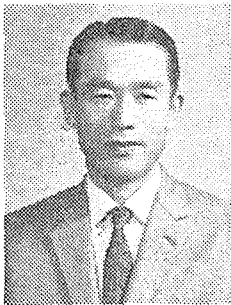
9) 索引 : 우리나라의 순수한 말로 찾아 보기도. 책속에 들어 있는 重要한 事項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책은 序文 다음에 目次가 있어서

그 책이 어떤 內容이며 어떻게 分類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는데 索引은 目次를 더욱 細分해서 讀者로 하여금 必要한 事項을 책을 全部 읽지 않고서도 찾아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것이 잘 짜여 있다면 책을 活用하는 데 한결 도움을 줄 수 있다. 特히 學術書籍일 경우에는 索引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不充分하다면 책으로서 存在價値를 減少하게 마련이다. 우리가 良書를 가리려 할 때 적어도 以上 아홉 가지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저 莫然하게 良書다 惡書다를 評定

하지 말고, 前述한 아홉가지를 한가지에 五點씩으로 全體를 四十五點으로 하고 內容을 五十五點으로 合計하여 百點을 滿點으로 한 冊의 評價方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圖書採點十則法이다.

冊을 評價하여 良書를 가리려할 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良書가운데서도 特別하게 優劣을 가리려 할 때는 어떤 基準이 없고서는 客觀的인 評價가 不可能하겠기에 이같은 冊의 評價基準이 切實히 要求된다.

◆ 푸 로 필 ◆



建國大學校  
中央圖書館長

趙 一 文

「누구나 한사람의 인간을 완전히 묘사해 내는 것처럼 어려운 것은 없다」고 한 슈

바이처박사의 고백이 생각난다. 더군다나 한 인간의 진면모를 단 몇자의 글로 표현한다는 것처럼 더욱 불가능한 일은 없을 것이다.

아무튼 굳은 의지와 신념, 불굴의 용기와 심오한 학문, 겸손한 태도와 겸소한 생활속에 담겨진 그 깊은 인간미는 오로지 새역사의 창조와 사회의 개조를 위해 일생을 바쳐오신 분이였음을 역역히 나타내 주고 있다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조관장님은 1917년 12월 17일 함남, 영흥에서 태어나 현재 부인과 슬하에 세아들을 두신 분으로 1943년 중화민국 남경 중앙대학 법상학원 정치과를 졸업, 1946년 숙명여대 조교수를 거쳐 1951년 건국대에 부교수로 취임한 이래 학생처장, 기획실장, 학술연구원장, 이부대, 법경대학장직을 역임하고 작년 12월 중앙도서관장으로 부임하시어 오직 반평생을 교육과 더불어 살아 오셨고 더불어 인권론, 새정치학, 민주사회주의, 새정당론 등의 저서와 수십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 학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이므로 이로써 다년간 교육계에 종사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해방전에는 우리 민족의 숙원이었던 조국광복을 위해 20대의 약관 독립투사로 활약하셨던 씨의 모습은 광복 20년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해 놓았으며 그 공로로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 표창을 받게 되었음은 실로 해방의 기쁨을 다시 되새겨 보게 한다.

이처럼 수많은 제자들의 존경과 문사사람들의 추앙을 한몸에 받게 해주었던 성실과 근면, 의지와 신념 용기와 정의, 겸손과 겸소의 태도는 비단 戰場과 교단에서만이 아니고 도서관 운영면에서도 역역히 찾아 볼 수 있다. 부임한지 몇개월에 불과하였지만 독서습관 함양을 위한 독서 캠페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설개조, 다채로운 도서관주간 행사의 개최, 교내 간행물 기사책인 발간 계획, 장서목록 개정판 발간계획, 교수저서 전시회 등을 비롯한 각종 독서주간 행사계획 등 72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침체된 도서관의 개발과 전인적 봉사정책을 세워 도서관과 독자간의 거리감 해소에 진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주한 하루의 생활속에서도 건국대 등산회장으로써 교직원 체력향상과 친목도모를 위해 진력하고 휴일마다 등산과 더불어 기이한 돌을 수집하는 씨를 볼때 천성적인 강인성과 조용한 성품속에 내재해 있는 삶의 멋을 또 한번 느끼게 한다.